**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사찰에 장애인이 온다면?

1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땐, 무조건 팔을 잡아 일으키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서게 하세요.

2 경사가 심한 곳을 휠체어가 내려올 때는 밀어주는 사람이 휠체어 뒤에 서서 내려와야 낙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막 외에 주변상황도 속기해 알려주면 상황 파악이 편합니다.

4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사찰 화장실의 경우 사용 중 표지판을 설치하면,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진, 그림,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긍정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시각장애인의 경우 소리를 통해 주변 정보를 얻기에 대화시 너무 크게 이야기 하지 말아 주세요.

7 법당 문은 활짝 열거나, 꼭 닫거나 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은 어정쩡하게 열어놓은 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8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계속 소리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행동특성을 보여요. 제지하지 말고 안정감을 주세요.

# 장애인 불자들, 인식 개선 나섰다

### 불자 장애인 모임 〈보리수아래〉
### 장애인 에티켓 자료집 펴내

**시청각 · 지적 · 지체 · 발달 등**
**장애 분류해 에티켓 소개**
**용어 정리 · 장애 복지 홍보 예정**



"사찰에 가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이쁘다고 쓰다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집에 오면 강아지가 배탈을 합니다. 안내견이 아무리 이뻐도, 너무 과한 애정은 삼가주세요."

"지체장애인들이 사찰에 오면 휠체어를 무턱대고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밀어주는 것을 불안해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 200만 시대를 맞아 불자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공생하는 삶은 무엇일까. 불자 장애인들이 불교계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에 첫 발을 뗐다. 불자장애인신행단체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최근 인식개선자료집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펴낸데 이어 보급에 나선 것이다.

보리수아래는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5년 6월 결성된 장애인 문학 · 음악 · 미술 모임이다. 그동안 장애인 불교문화 체험을 비롯해 공동시집 및 음반 발간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에티켓 자료집은 그동안 불자 장애인들이 겪었던 불교계의 낮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불교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작을 준비해 왔다.

자료집에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에티켓 △시각장애인 에티켓 △청각장애인 에티켓 △발달장애인 에티켓 등이 총 7페이지에 걸쳐 담겼다.

내용은 평소 대부분의 불자들이 무심코 행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담고 있다.

현재 보리수아래는 250개 사찰에 자료집을 배부한 상태며, 향후 불교계 전 사찰과 불교계 사회복지관에도 에티켓자료집을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 인식개선사업으로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장애자', '장애우' 등의 법정용어 '장애인'으로의 정립 등 장애용어 통일, 불교계 장애복지의 대외적인 홍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장애인들의 법정 종류만도 15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이 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며 "특히 불교계에는 외부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황이다. 장애인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계 인식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탈출구 없는 청년 빈곤? 서울형MC로 '지옥고' 벗어나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④ 서울 노원구 '바뱅이' 조광호 대표




조광호(33)씨가 스무 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모두가 친척집에 얹혀살게 됐다. '나라도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으로 직업군인에 지원, 4년 6개월 동안 특전사 생활을 하며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지만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무릎에 장애를 얻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하고 재활운동에 돌입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취업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아르바이트 생활이 5년 동안 계속됐다.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불안정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조 씨와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청년들이 빈곤에 처해있다. 취업난의 여파로 무직 상태의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며 '캥거루족' '니트족'이란 말도 생겼다. 취업을 하더라도 가난을 쉽사리 벗어나긴 어렵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지 · 옥 · 고'란 말이 생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 속에서도 자립 의지를 포기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 조 씨 역시 연이은 취업 실패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조 씨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 MC)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올해 2월, 5년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매장 '바뱅이(서울 노원구 위치)'를 인수했다.

"친절한 주인 부부를 만나 5년 동안 애착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주인 부부가 업종을 전환하며 가게를 내놓은 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높은 이자율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던 중 조 씨는 지인을 통해 서울형MC에 대해 알게 됐고,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업한지 얼마 안 돼 큰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매달 월 평균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조 씨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 담보가 필요한데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데 서울형 MC는 사업계획표를 통해 창업의지 및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전문직 · 대기업 · 공무원 등만 쫓는 요즘 시대에서 나도 시험 준비에 매진한 적도 있지만, 확신만 있다면 창업도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 전세계 청소년 불자, 울산서 결집

### 파라미타, 8월 5~7일 국제캠프 개최… 1000여명 참석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는 8월 5~7일 양산 통도사와 울산대 등에서 제20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및 제3회 국제캠프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국제캠프는 창립 20주년을 기해 파라미타가 세계 청소년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행사로 우리나라 청소년 600명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10개 국가에서 200여 불자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행사는 8월 5일 오후 7시 울산대 해송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 양산 통도사 사찰문화답사와 폐회식으로 마무리 된다.

캠프 첫날인 5일에는 먼저 울산대에서 제1회 청소년 리더십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참가국 청소년들이 발제자로 나서 '미래지도자가 가져야할 요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당 3~5분 가량 발표되며 참석 청소년들에게는 국제포럼 참가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어 울산대에서는 대표적인 청소년 멘토로 꼽히는 김수영 작가의 명사초청 특강이 진행된다.

둘째날인 6일에는 옹기마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의 문화탐방이 이어진다. 또 도전 1080배, 금강계단 모형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오후 8시 30분에는 울산대공원 공연장에서 청소년 음악놀이 축제가 열려 국가별 공연도 펼쳐진다.

폐막 후 각국 청소년들은 불국사와 통도사에서 8~9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도 체험한다.

심산 스님은 "국제캠프를 통해 파라미타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청소년단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며 "향후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불자청소년들의 역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청년 대학생불자들, 올여름 지리산으로…

###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지리산 일대서 진행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지리산에 모여 한국불교 발전의 원력을 새롭게 다진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 이하 대불련)는 8월 3~6일 구례 화엄사와 지리산 일대에서 '소행성(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을 주제로 제8회 영부디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영부디스트캠프는 대불련이 매년 대학생 불자들의 우호와 신심 증진을 위해 여는 캠프로 사찰과 국립공원 등에서 펼쳐진다.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여름캠프에는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캠프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춘고민상담소를 운영하는 장재열 대표가 '인생질문 구하고 출발하자-인질구출'을 주제로 강연하며, 화엄사 포교국장 도운스님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 즉문즉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임별 토론과 천은사 및 화엄사 순례, 노고단 산행, 계곡 물놀이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수 대불련 중앙회장은 "이번 영캠프는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의 줄임말인 '소행성'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는 행성 주변을 맴도는 소행성처럼 자신 주변의 행복을 찾자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함께 격려와 용기를 보냄으로써 행복감과 자신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 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